

[비판적 이해 능력]

1. 아래 장면을 보며 나는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

- ① 둘 다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이제 편히 쉬고 있나 봐,
- ② 할머니께서 금세 잠드신 것을 보니 힘찬이가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시나 봐.
- ③ 힘찬이가 벽에 기대어 앉은 모습이 일을 마치고 지쳐 있는 사람처럼 보여 안타까워.
- ④ 할머니를 돌봐 드릴 때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충전을 하는 로봇이라니 어쩐지 슬퍼져.
- ⑤ 힘찬이 같은 로봇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간병인이나 가족들이 없어도 괜찮겠어.

[어휘 능력]

2. 밑줄 친 낱말의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힘찬이마저 돌아가면 어떨하지.
- ②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었다.
- ③ 할머니는 눈을 꼭 감고 화를 가라앉혔다.
- ④ 청년은 로봇의 머리를 쓱 한 번 흘뜨리고는 떠났다.
- ⑤ 힘찬이가 한쪽 구석으로 비켜서면서 눈을 끔벅거렸다.

[사실적 이해 능력]

3. 전쟁이 끝난 후에 교가 한 일이 아닌 것은?

- ① 우표 도안과 소원도 장식을 했다.
- ② 그림책을 완성해 출판사에 보냈다.
- ③ 일본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며 여행도 다녔다.
- ④ 푸들 두 마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정성껏 키웠다.
- ⑤ 어린이들이 읽을 당시 책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렸다.

[추론적 이해 능력]

4. 교가 만든 그림책을 생각할 때, 밑줄 친 부분의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아기들은 참을 수 없었어요.
낮은 책장을 넘겨야 했어요.
아기들은 모두 교의 책을 좋아했어요.
교의 책을 사랑했죠!

- ① 모든 아기들이 다 주인공이어서
- ② 아기들과 함께하는 동물들이 너무 귀여워서
- ③ 아기들이 웃는 표정이 모두 밝고 행복해 보여서
- ④ 누구라도 책 속에서 자기와 같은 모습의 아기를 찾을 수 있어서
- ⑤ 피부색이 서로 다른 아기들이 모두 어울려 사이좋게 놀고 있어서

[통합 사고 능력]

5. [가]와 [나]를 읽고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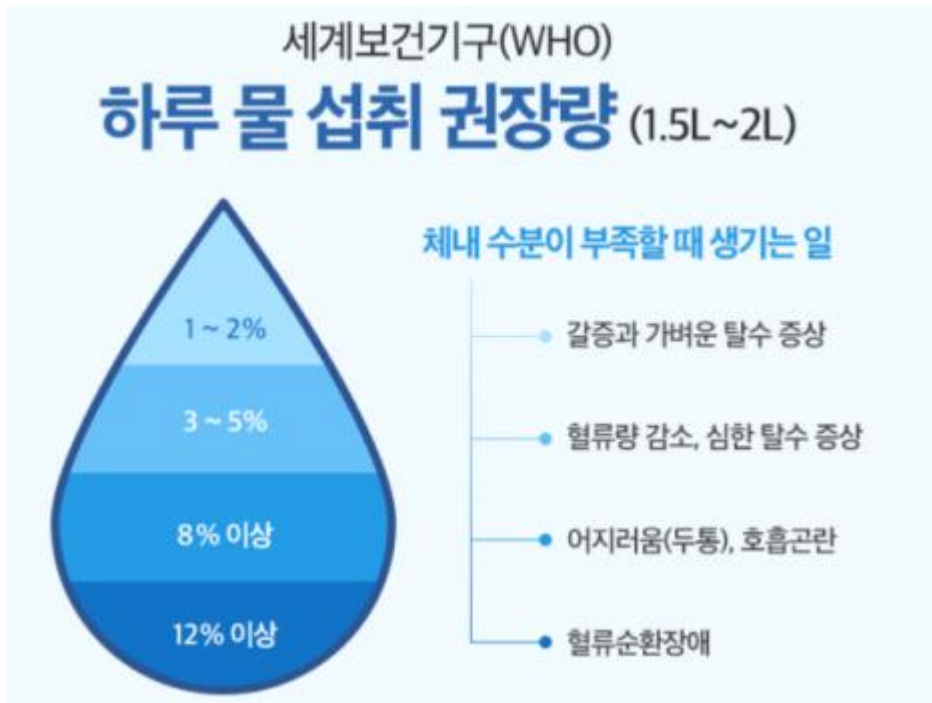
[가]

우리 몸은 거대한 ‘물통’이다. 몸의 60%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다. 몸속 수분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. 이렇게 몸 전체를 돌며 신진대사*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. 그래서 물을 제대로 섭취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.

- <중앙일보>(2015.11.02.), 재구성 -

*신진대사: 우리 몸이 밖으로부터 섭취한 물질을 합치거나 나눠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로 바꾸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활동.

[나]



- <출처 : 하이트진로음료(주) 누리집> -

- 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다.
- ②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을 기르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.
- ③ 물이 마시고 싶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.
- ④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을 하루 중 아무 때나 한꺼번에 마셔도 된다.
- ⑤ 우리 몸속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.